

독립군과 한국광복군의 항일무장투쟁

朴 敏 泳*

Ⅰ 국문초록 Ⅰ

한말 의병전쟁에서 시작된 항일무장투쟁은 독립운동의 근간을 이루며 만주 독립군으로 발전하였다. 만주에서 독립군단이 편성되는 것은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해서였다. 만주의 독립군단은 3·1운동에서 나타난 한민족의 독립열망을 띠고 독립전쟁을 수행하였다. 독립군이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큰 승리는 한민족 독립전쟁의 최고 절정이었으며, 동시에 3·1운동 이후 극도로 고조된 독립열망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3·1운동 직후 만주 독립군은 일제의 집중탄압을 받으면서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 그뒤 만주 독립군단은 전열을 새롭게 정비하였다. 그 결과 북만주에서는 한국독립군이 결성되었고, 남만주에서는 조선혁명군이 편성되었다. 한국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은 중국인민들과 연합하여 만주를 침략한 일본군과 항일전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만주 독립군은 일제의 파상적 탄압으로 말미암아 1930년대 중반에 이르러 중국 관내지방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항일무장투쟁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국광복군은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의해 1940년 9월 중경에서 편성되었다. 임시정부가 광복군을 편성한 목적은 미국, 영국 등과 함께 연합국의 일원으로 대일전에 참전하여 승리함으로써 당당한 전승국의 자격으로 독립을 쟁취하는 것이었다. 인도 전선에 인면전구공작대를 파견하여 영국군과 공동으로 군사작전을 전개한 것과, 미국의 전략사무국(OSS)과 공동작전을 구상한 일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인면전구공작대는 1943년 중경에서 현지로 파견되었고, 1945년 해방 직후 중경으로 귀환하였다. 이 부대는 임시정부가 연합국의 일원으로 2차대전에 참전하기 위해 편성한 광복군의 소임을 최일선에서 구현했던 유일한 부대였다. 이 부대는 영국군과 공동으로 대일전을 벌여 임팔 등지에서 커다란 활약을 하였다.

광복군은 또한 국내침투를 위해 미국과도 공동으로 작전을 계획하였다. 그 결과 일부 광복군은 1945년 5월부터 미국 전략첩보국(OSS, Office of Strategic Services)과 합작훈련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한미공동작전 계획은 일제의 패망으로 인해 실행되지 못하고 말았다.

만주 독립군과 임정의 한국광복군은 독립운동사의 중심을 관류하는 항일무장투쟁사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대한제국 군대와 항일의병의 嫡統을 계승한 한민족의 精華라 할 수 있다. 곧 국내에서 활동하던 의병 가운데 국치 전후 北上渡江을 결행한 세력이 곧 만주 독립군의 근간이 되었고, 또 만주 독립군의 핵심세력이 중국 관내지방으로 이동하여 임정 광복군의 주류를 형성했다는 사실과 그 경향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립전쟁을 모토로 한 항일무장투쟁 노선은 지역적, 시대적 환경과 조건에 능동적으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선임연구원 / pmy0077@hanmail.net

로 상응하여 형태와 방식을 달리하면서 1894년 청일전쟁 이후부터 1945년 해방 때까지 일관되게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주제어] 독립군, 광복군, 의병전쟁, 대한민국임시정부, 한국독립군, 인면전구공작대, 이청천, 김학규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Ⅲ. 한국광복군의 항일무장투쟁 |
| Ⅱ.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 | Ⅳ. 맺음말 |

I. 머리말

만주 독립군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은 한국독립운동사의 중심을 관류하는 항일무장투쟁사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1894년 청일전쟁 이후부터 시작된 의병전쟁은 1905년 을사조약 체결, 1907년 광무황제 강제퇴위와 군대해산 등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확대 격화되어 구국의 聖戰으로 발전하였다. 이들 의병은 일제 군경의 파상적인 탄압을 피하여 1910년 國恥를 전후한 시기에는 압록강·두만강을 넘어 연해주와 간도로 건너가 독립운동 근거지를 건설하면서 장기항전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처럼 북상도강한 항일의병이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독립전쟁을 결행하게 되는 만주 독립군의 근간을 형성한 세력이라 할 수 있다.

한국독립운동사상 무장투쟁을 선도한 항일의병이 국치 전후에 압록강·두만강 대안 혹은 변경지대로 집중되고 장기지속적인 항일전의 방안을 모색하게 되면서 獨立戰爭論이 대두하였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무장세력이 곧 3·1운동을 계기로 부상한 독립군이였다. 봉오동승첩과 청산리대첩으로 형상화된 1920년 만주 독립전쟁의 주역이었던 독립군은 이후 일제의 만주 침략과 공산주의 이념문제가 제기되는 시련 속에서도 여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1930년대 중반까지 항일전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한편, 1932년 윤봉길 의사의 홍구공원 의거 이후 上海를 떠나 양자강을 따라 각지를 전전하던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40년 重慶에 정착한 직후 광복군을 편성하였다. 광복군은 관내지방으로 남하한 만주 독립군 세력을 근간으로 삼아 편성되었다. 이는 곧 광복군이 만주 독립군의 정통성을 계승한 민족의 군대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좌라 할 수 있고, 실제로 광복군은 자신들이 대한제국의 군대와 의병, 독립군의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자부하였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군'이던 광복군은 활동목표가 2차대전에 참전하여 미국, 영국 등 연합군과 함께 대일전을 전개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

해 광복군은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印緬戰區工作隊를 인도·미얀마 전선에 파견하여 영국군과 공동작전을 전개했던 것과 미국의 전략첩보국(OSS)과 공동작전을 도모하던 것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역사적 맥락하에서 만주 독립군과 임시정부 광복군이 전개했던 항일무장투쟁을 개관해 보고 그 시기별 양상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만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논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1919년 3·1운동 이후부터 1930년대 중반 독립군의 중심세력이 관내지방으로 이동할 때까지 만주 독립군단의 성립과 변천 추이를 살펴보았다. 이어, 독립군이 전개한 항일무장투쟁의 大綱에 상당하는 1920년의 봉오동승첩과 청산리대첩을 필두로 1920년대 중반 참의부의 항일전, 그리고 1930년대 초반에 활약했던 북만주의 한국독립군과 남만주의 조선혁명군의 항일전 등을 개관하였다. 다음으로, 광복군의 항일무장투쟁은 연합군과의 공동전선 구축을 통한 對日戰 수행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광복군이 편성되는 시대적 배경과 창군과정에 대해 언급한 뒤, 다음으로 영국군과 공동으로 대일전을 수행한 인면전구공작대의 활동상과, 미국의 전략첩보국(OSS)과 공동으로 대일전을 추진하던 사실 등을 개관하였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항일무장투쟁사의 실상을 해명하는 차원에서 부문별, 지역별 연구에 집중해 왔다. 그리하여 만주 독립군과 광복군이 수행한 대일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실상을 밝혀 놓았다.¹⁾ 해방 후 독립운동사학계에서 거둔 대표적인 성과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그러한 선행 연구를 토대로 국외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사의 커다란 흐름을 조망하고 그 역사적 의의를 새롭게 구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밝히거나 또는 기존에 알려진 사실에 대해 해석을 새롭게 시도하지는 않았다. 대신에 독립운동사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항일무장투쟁사의 큰 흐름 속에서 만주 독립군과 임시정부 광복군이 전개한 항일전의 실상을 살펴보고 시기별, 지역별 양상과 특징을 추출함으로써 항일무장투쟁사, 나아가 독립운동사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데 본래의 목적을 두었다.

Ⅱ.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

1. 독립군단의 성립과 변천

1919년 3·1운동은 만주 독립군이 전개한 독립전쟁의 계기가 되었다. 한민족의 저력은 3·1운동에

1) 만주 독립군과 광복군의 항일무장투쟁에 관한 주요 논저는 다음과 같다. 慎鍾廈, 『韓民族獨立運動史研究』, 을유문화사, 1985; 尹炳奭, 『獨立軍史』, 지식산업사, 1990; 윤병석 외 5인, 『중국동북지역 한국독립운동사』, 집문당, 1997; 채영국, 『1920년대 후반 만주지역 항일무장투쟁』,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장세운, 「한국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장세운, 「조선혁명군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 1990; 韓詩俊, 『韓國光復軍研究』, 일조각, 1993; 김광재, 『한국광복군』,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박민영, 「한국광복군 印緬戰區工作隊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3, 2009.

서 엄청난 규모로 분출되었지만, 전 민족이 갈망하던 독립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일제의 탄압과 감시만 더욱 강화될 뿐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3·1운동에 참여했던 지식들은 일제의 감시를 피해 새로운 독립운동의 방향을 모색코자 해외 각지로 탈출하게 되었다.

3·1운동 직후 국내외의 민족지사들은 강력한 무장투쟁만이 일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임을 절감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평화적인 만세시위운동이 가지는 한계를 절감한 결과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1910년 국치 전후부터 민족운동자들은 그동안 국외독립운동의 주된 사조였던 '독립전쟁론'을 구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독립전쟁론'은 일제의 질곡에서 벗어나 민족해방과 조국독립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 일제를 상대로 適期에 독립전쟁을 벌여 승리하는 것이라는 독립운동의 한 이론체계를 할 수 있다. 여기서 독립전쟁을 결행할 '적기'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계몽운동에서 제시한 근대적인 이념과 방략에 따라 민족의 역량을 향상시키면서 시기를 기다리다가 일제가 더욱 팽창해서 중국, 러시아 또는 미국과 전쟁을 감행하게 되는 시기를 의미한다. 국치 전후 대부분의 민족운동가들은 일제가 그 세력이 팽창됨에 따라 반드시 중국을 침략하게 될 것이고, 또 러시아와 대결하거나 미국의 이해와도 대립하게 될 것으로 믿고 있었다. 곧 민족운동가들은 중일, 러일, 미일 전쟁의 발발을 필연적인 사실로 예견하였던 것이다. 독립전쟁론을 구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는 무엇보다 일제의 통치력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 독립운동 근거지를 건설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이 사업을 주도한 세력은 계몽운동을 전개하던 민족운동가와 항일의병들이었다.²⁾

1894년 청일전쟁 이후 개시된 의병전쟁은 구국의 성전으로 확대 고조되던 1907년 이후가 되면 북한지역을 비롯해 압록, 두만강 대안의 간도와 연해주까지 확대되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의병은 국망에 직면한 절박한 시대상황에서 일제 침략세력을 축출하고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집요하고도 처절한 항일전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1908년 하반기 이후 수년 동안 일제의 탄압이 가중되던 상황에서 전력이 고갈된 의병은 새로운 항전방향을 모색하고 근거지를 구축, 장기지속적인 항일투쟁을 위해 간도와 연해주 등지로 북상도강하던 것이 일반적 경향이였다. 제천의병장 柳麟錫을 비롯해 李鎮龍·趙孟善·朴長浩·白三圭·趙秉準·全德元 등의 양서지방 의병장, 洪範圖·車道善 등의 관북지방 의병장 등이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국치 직전인 1910년 6월에 러시아 연해주에서 편성된 十三道義軍은 의병을 비롯한 국내의 항일무장투쟁이 국외로 확대되어 가던 道程에 나타난 항일군단이었다. 결국 이러한 의병의 북상세력은 1910년 국치 이후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항일무장투쟁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는 독립군의 모태가 되면서 민족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³⁾

3·1운동 직후부터 만주와 연해주 한인사회에서는 무장항일전을 표방한 여러 독립군단이 동시다발적으로 편성되고 있었다. 1919~1920년 사이에 북간도에서 조직된 독립군단만 보더라도 大韓軍政署, 大韓國民軍, 大韓獨立軍, 軍務都督府, 大韓義軍府 등 대규모 군단에서부터 大韓光復團, 義民團, 大韓

2) 尹炳奭, 『國外韓人社會와 民族運動』, 一潮閣, 1990, pp.11~12.

3) 朴敏泳, 『大韓帝國期 義兵研究』, 한울, 1998, p.360.

新民團, 大韓正義軍政司 등 중소규모 군단에 이르기까지 많은 독립군단이 있었다. 또한 서간도에서도西路軍政署와 大韓獨立團 등을 비롯해 光復軍總營, 光復團, 義成團, 天摩隊 등 대소 군단들이 독립전쟁을 표방하고 나섰다. 이러한 현상은 독립을 향한 한민족의 고조된 열기가 일시에 분출된 결과이기도 하였다.

수많은 항일단체와 독립군단이 정비되고 편성된 것은 항일독립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했다는 점에서는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갈래의 군단이 도처에서 편성된 결과, 활동 면에서 볼 때 각기 고립 분산적 형태로 항일전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결국 전력의 분산이라는 한계를 노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독립군단의 통합문제는 항일전 수행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이에 따라 여러 항일단체와 독립군단은 각기 조직을 정비하면서 항일전을 수행하는 한편, 내부적으로 상호 통합운동을 활발하게 진행시켜 갔던 것이다.

만주 독립군단의 편성과 통합운동은 3·1운동 이후부터 1920년에 걸쳐 큰 활기를 띠었다. 그러나 1920년 10월에 감행된 일본군의 간도침공과 庚申慘變으로 인하여 여러 독립군단은 큰 시련에 부딪쳤고, 통합노력과 시도도 일시 중단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봉오동승첩과 청산리대첩 후 만주 독립군단은 일본군의 대탄압을 피해 密山으로 북정을 결행하였고, 이어 러시아 연해주로 건너가 1921년 6월에 자유시참변이라는 독립운동사상 최대의 참극을 겪게 되었다. 자유시참변 이후 만주로 회귀한 독립군단은 이에 굴하지 않고 다시 조직을 정비하면서 일제와의 결전의지를 더욱 다져갔다.

이후 독립군의 항일역량을 결집시켜 전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통합 시도와 노력은 계속되었고, 그 결과 1922년 8월에는 남만주에 大韓統義府가 성립되어 통합기반을 구축하였다. 그후 독립군단간의 통합운동은 대한통의부의 통일기반을 바탕으로 크게 진전되어 참의부·정의부·신민부 등 3부의 성립을 보게 되었다. 즉 1924~1925년까지는 요녕성의 集安·寬甸縣을 중심으로 압록강 대안 일대에 세력을 가진 參議府와, 요녕성과 길림성에 걸치는 하얼빈 이남의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正義府, 그리고 寧安을 중심으로 한 동북만의 중동선 일대에서 북간도 일부에 걸치는 新民府로 정립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들 3부는 각기 한민사회의 자치를 집행하는 民政機關과 무장항일전을 전개하는 軍政機關의 결합체로, '독립전쟁론'의 구현을 최고 목표로 삼는 軍政府였다. 일본군과의 전면 대결은 비록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십 명으로 편제된 독립군 소부대들은 일제 통치기관을 습격하여 그 기능을 마비시켰고, 일제 군경을 사살하였으며 또한 일제의 僞鬼인 밀정을 숙청하였다. 이들 독립군은 군영지를 중심으로 한 남북만주에 국한하지 않고 수시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 평안도, 함경도 변경지대로 넘어가 활동하였으며, 때로는 황해도, 경기도 등 중부지방까지 깊숙이 진입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3부 가운데서도 서간도를 주무대로 활동하였던 참의부는 지리적 근접성과 무장투쟁의 지향성으로 인해 1920년대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주도하였다.⁴⁾

1931년 9·18사건 이후 만주국이 들어서고 일제가 만주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되자, 독립군은 다

4) 채영국, 『1920년대 후반 만주지역 무장항일투쟁』,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pp.16~19.

양한 계통의 중국 의용군과 연합전선을 구축하면서 공동으로 대일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북만주의 韓國獨立軍과 남만주의 朝鮮革命軍이 이 시기 한중연합전을 전개한 대표적인 독립군단이었다.⁵⁾

3부 통합운동이 결렬된 후 북만주에서 활동하던 한족총연합회가 주축이 되어 1930년 7월 길림성 葦河縣에서 한국독립당이 결성되었다. 그리고 洪震, 李青天 등 한국독립당의 지도자들은 黨軍인 韓國獨立軍을 편성하였다. 특히 사령관 이청천은 종래의 분산적이고 소규모적인 유격전으로는 전면 항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북만주 각지의 대소 부대를 총 집결시켜 대규모의 항일전을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들은 무장항일전의 군사전략과 국제정세를 다음과 같이 전망하였다.

왜적의 이번 발동은 다만 만주의 침략에만 그치지 않고 장차 山海關 이내 중국 대륙과 기타 지역까지 침략할 것이고 이 결과는 반드시 세계대전을 유치하고야 말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한국독립의 계기는 여기서 싹트게 마련이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만주 바닥의 항일부대와 공동작전을 펴서 무기·탄약 등 일체 보급을 얻어낼 수 있으며, 또 일보 나아가서는 세계 연합군의 교전단체로 참가하여 같이 입국, 상륙작전에 참여하게 되면 반드시 戰後 講和會議에서 독립을 쟁취할 수 있을 것이다.⁶⁾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한국독립군의 지도자들은 1931년 9·18사건 직후에 이미 일제의 관내지방 침공, 곧 중일간의 전면전을 예견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과의 연합항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방략을 모색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독립군은 이러한 전망하에 9·18사건 이후 항일의 기치를 내걸었던 李杜·丁超 등이 거느리던 중국군과 교섭을 계속한 결과 1931년 12월에는 쌍방간에는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져 한중연합전선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이때 합의된 내용을 보면 비록 중국군으로부터 군수물자의 지원을 받고 중국군과 연합하면서도, 한국독립군은 독자적인 단위부대를 유지하면서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계획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⁷⁾

한국독립군은 오광선과 이응서, 그리고 조경한 등의 군인 소모노력에 힘입어 6개 대대로 편제하면서 소규모 유격전의 중심에서 벗어나 대규모 정규전을 치를 수 있도록 편제를 개편하였다. 그리하여 총사령관 이청천 휘하에 金昌煥과 黃學秀 등이 부사령관에, 참모장에 申肅과 趙擎韓이 연이어 선임되었다.

한국독립군은 이와 같이 9·18사건 이후 만주에서 봉기한 반만 항일군과 연합하여 대일항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중국인들은 일본군의 침략에 맞서 항일투쟁을 전개하였으며, '만주국'이 세워진 뒤에도 이를 인정치 않고 만주국군과 관현의 통치에 저항하고 일제의 침략에 반대하는 반만 항일운동을

5) 여기서는 민족주의 계열의 무장항일투쟁만 다루었고, 1930년대 사회주의 계열에서 전개한 또 다른 한중연합세력인 동북항일연군의 무장투쟁에 대해서는 내용과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생략하였다.

6) 趙擎韓, 『白岡回顧錄』, 한국종교협의회, 1979, p.94.

7) 一青, 「九一八後韓國獨立軍在中國東北殺敵略史」, 『光復』 제2권 제1기, 1942, pp.53~56.

광범위하게 전개해 나갔다.

9·18사변 이후 봉기한 각종 반만 항일부대의 총수는 1932년에는 36만여 명을 헤아릴 정도의 대규모 세력을 형성하였으나, 거듭되는 만주국 군경 및 일본군의 탄압으로 1934년에 들어서는 4만여 명으로 격감했고 중일전쟁이 일어나는 1937년에는 9천 5백 명, 그리고 1939년경에는 3천 명으로 줄었다가 1941년 초를 고비로 거의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⁸⁾

‘반만항일’의 기치를 걸고 항일전을 벌였던 만주 중국인들의 세력은 다양하였다. 이들은 시의에 따라 義勇軍·救國軍·自衛軍 등의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중국 본토의 국민당 정부와도 연계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한국독립군은 李杜·丁超 등의 吉林自衛軍·中東鐵道護路軍, 王德林 휘하의 吳義成·孔憲榮 등이 거느리는 吉林救國軍과 연결되어 반만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한국독립군이 1932년 초 북만일대에서 크게 세력을 떨친 길림자위군을 비롯하여 중동철도호로군·길림구국군과 연합하여 항일투쟁을 전개한다는 것은 전투역량의 강화나 자기세력의 보존 및 진작을 위해 옳은 방향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서간도를 중심으로 한 남만주 일대에서는 1929년 한인 자치기관으로 國民府가 결성되었다. 그리고 국민부의 친위 독립운동정당인 朝鮮革命黨이 결성되었고, 그 黨軍으로 朝鮮革命軍이 편성되어 한중연합의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해 나갔다. 이러한 단체와 군단은 1920년대 후반 만주에서 전개되었던 민족유일당운동의 일정한 성과를 반영한 결과 탄생한 것이었다. 이처럼 국민부를 필두로 조선혁명군과 조선혁명당이 정비됨에 따라 1930년대 초 남만주지역의 민족주의계 운동조직은 당(지도정당)·정(자치기관)·군(독립군) 체제로 역할을 분담하게 되었다.

남만주의 조선혁명군은 1910년 전후 독립운동근거지 건설 이래 축적된 독립군의 역량을 총집결하여 여러 난관을 극복하며 강인한 무장투쟁을 펼쳐갔다. 만주침략 이전까지만 해도 일제에 대해 직접적인 적대관계를 보이지 않았던 중국측도 그들에게 절박하게 다가온 국가적 위기를 맞아 굳은 항전의 의지를 다지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조선혁명군은 중국인들과 공동의 항일전을 펼쳤다. 조선혁명군의 지휘관들은 중국의 항일군 지도자들인 唐聚五·楊靖宇 등과 연대하여 대규모의 한중연합군을 결성하였다. 이와 같은 한중연합군의 결성은 독립군이 20년간에 걸쳐 독립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실전경험과 중국측의 군수물자 및 인적자원이 결합되어 대규모의 항일전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⁹⁾

중국의 항일의용군은 항일구국군을 비롯하여 국민구국군, 그리고 산발되어 포진한 자위군 및 자치군 등이 있었다. 이들 중국 의용군들은 군사력에 차이가 있는 데다가 제각기 얻고자 하는 실리가 달랐기 때문에 자체 통합도 어려웠다.¹⁰⁾ 하지만 1932년 3월부터 조선혁명군은 중국측의 의용대와 연합하여 적극적인 대일항전을 전개해 갔다.

8) 윤병석 외 5인, 『중국동북지역 한국독립운동사』, 집문당, 1997, p.519.

9) 장세운, 「조선혁명군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0, pp.315~343.

10) 추현수, 「조선혁명당과 한국독립당의 활동」, 『한민족독립운동사』 4, 국사편찬위원회, 1988, p.375.

2. 독립군의 항일전

(1) 鳳梧洞勝捷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만주와 연해주 각지에서 독립군이 본격적인 항일전에 돌입하게 되자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말 “독립운동의 최후수단인 전쟁을 대대적으로 개시하여 규율적으로 진행하고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持久하기 위하여” 독립전쟁의 ‘준비’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임시정부는 독립군단의 편성과 정비, 군인모집과 군사훈련, 군비확충 등을 가장 중요한 시정목표로 설정하였다.¹¹⁾

독립군은 독립전쟁 결행에 즈음하여 3·1운동으로 고양된 독립의지로 충만해 있었다. 홍범도 등의 명의로 발표된 「諭告文」 중에서 “당당한 독립군으로 몸을 砲煙彈雨 중에 던져 반만년 역사를 광영 되게 하며 국토를 회복하여 자손만대에 행복을 줌이 우리 독립군의 목적이요 또한 민족을 위하는 본 의”라고 밝힌 대목은 당시 독립군의 이와 같은 기상과 포부를 잘 드러낸 것이다.¹²⁾ 임시정부 군무부에서도 1920년 1월 “충용한 대한의 남녀여, 혈전의 時, 광복의 秋가 來하였도다. 너도 나아가고 나 도 나아갈지라. 정의를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銃과 血로써 조국을 살릴 때가 이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布告」 제1호를 발하여 독립전쟁의 개시를 선언하며 독립군의 사기를 독려했다.¹³⁾ 다음 「獨立軍歌」는 이처럼 늠름한 독립군의 기상을 노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독립군 편성의 역사적 배경도 아울러 함축적으로 표현하였다.¹⁴⁾

나아가세 독립군아 어서 나가세
이때를 기다리고 10년 동안에
나아가세 대한민국 독립군사야
정의의 태극깃발 날리는 곳에

기다리던 독립전쟁 돌아왔다네
갈았던 날랜 칼을 시험할 날이
자유 독립 광복할 날 오늘이로다
적의 軍勢 낙엽같이 쓰러지리라

보느냐 반만년 피로 지킨 땅
듣느냐 이천만 檀祖의 血孫
양만춘 을지문덕 피를 받았고
나라 위해 목숨을 터럭과 같이

오랑캐 말발굽에 밟히는 모양
원수의 칼 아래서 우짖는 소리
이순신 임경업의 후손 아니냐
싸우던 네 조상의 후손 아니냐

탄환이 빗발같이 퍼붓더라도
대한의 용장한 독립군사야
최후의 네 핏방울 떨어지는 날

창과 칼이 네 앞을 가로막아도
나아가고 나아가고 다시 나가라
최후의 네 살점이 떨어지는 날

11) 「大韓民國臨時政府施政方針」, 『韓國獨立運動史』 3, 국사편찬위원회, 1969, p.364.

12) 「諭告文」, 『獨立新聞』 1920년 1월 13일자.

13) 「軍務部布告」, 『獨立新聞』 1920년 2월 10일자.

14) 「獨立軍歌」, 『獨立新聞』 1920년 2월 17일자.

네 그리던 조상나라 다시 살리라 네 그리던 자유꽃이 다시 피리라

곧 국치 전후부터 10년 동안 준비한 독립전쟁의 시기가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도래하였다는 것이다. 나아가 독립전쟁은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정의를 표방한 투쟁임을 천명한 것이다.

만주 독립군이 전개한 독립전쟁의 신호탄은 1920년 6월 7일의 봉오동승첩이었다. 그리고 봉오동승첩의 전단은 그 전날 벌어진 三屯子戰鬪이다. 三屯子是 도문 남쪽 두만강변의 국경마을로, 그 대안에는 종성군의 江陽洞이 자리잡고 있다. 또한 삼둔자전투는 독립군이 그동안 통상적으로 수행하던 소규모의 국내 진입전이 단초가 되어 벌어졌다. 6월 4일 새벽 30명으로 편성된 독립군 소부대는 통상적인 국내 진입전의 일환으로 삼둔자에서 두만강을 건너 동북방의 강양동으로 진격, 일제 헌병순찰소대를 격파한 후 날이 저물자 두만강을 다시 건너 귀환함으로써 작전을 종료하였다. 그러자 일제 군경은 강양동 패전을 보복하기 위해 독립군 추격에 나섰다. 新美 중위가 인솔하는 남양수비대 1개 중대와 헌병순사 10여 명은 두만강을 건너 삼둔자에 이르러 분풀이로 무고한 양민을 살육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독립군은 삼둔자 서남방 요지에서 이들을 공격, 섬멸시켜 버렸다. 이것이 삼둔자전투로, 처음으로 두만강을 건너 중국 영토로 불법 침입한 일본군을 격퇴한 것이다.¹⁵⁾

독립군이 계속적으로 수행한 국내진입전에 충격을 받은 일제는 북간도의 독립군 근거지를 수색, 탄압하기 위해 대병력을 동원하기에 이르렀다. 이른바 ‘越江追擊大隊’의 편성이 그것이다. 즉 함북 鏡城郡 羅南에 사령부를 두고 두만강을 방어하던 일본군 제19사단은 三屯子에서의 참패를 설욕하고 독립군을 탄압하기 위해 ‘월강추격대대’를 편성, 불법으로 북간도를 침범케 한 것이다.

6월 7일 새벽 온성군 下灘洞에서 도강을 완료한 일본군은 독립군의 주요 근거지인 鳳梧洞을 향하면서 이른바 작전을 개시하였다. 도문 북쪽 외곽에 있는 봉오동은 동북방으로 뻗은 25리에 달하는 긴 골짜기이다. 봉오동 계곡으로는 실개천이 흐르고 있으며, 여기에 초모자 형태의 높은 산이 있어 중국인은 이곳을 草帽頂子라 불렀다.

일본군 본대가 포위망 속으로 완전히 들어왔을 때 독립군 지휘관 홍범도는 총공격을 알리는 신호탄을 발사하였다. 삼면 고지에 매복하고 있던 독립군은 동시에 집중사격을 개시하였다. 불의의 기습공격을 받은 일본군은 포위망을 벗어나고자 필사적으로 응전하였다. 하지만, 유리한 지형을 선점한 독립군의 맹공에 예봉이 꺾인 일본군은 시간이 흐를수록 사상자만 속출할 뿐이었다. 군립군의 완전한 포위망 속에서 3시간을 버티던 일본군은 드디어 패퇴하였다.¹⁶⁾

봉오동에서 독립군이 압승을 거둔 사실은 한중일의 관련자료나 정황으로 보아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전과에 대해서는 자료마다 큰 차이를 보여 그 실상을 명확히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임정의 군무부는 독립군측의 전과를 일본군 사살 157명, 중상 200여 명, 경상 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그리고 독립군측의 피해는 전사 4명, 중상 2명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 전과는 압승 사실을 내외

15) 尹炳奩, 『獨立軍史』, 지식산업사, 1990, p.143.

16) 「北嶺島에 在한 我獨立軍의 戰鬪情報」, 『獨立新聞』 1920년 12월 25일자.

에 과시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¹⁷⁾ 그렇지만, 봉오동승첩 직후에 보도된 『독립신문』이나 上海에서 발간되던 『時報』의 기사를 통해서 볼 때 일본군 150여 명을 사살한 공전의 대승을 거둔 것으로 믿어진다.¹⁸⁾

봉오동승첩은 독립운동 진영과 일제 군부 양측 모두에게 큰 충격과 영향을 주었다. 독립군측은 임정 군무부가 이 승첩을 ‘독립전쟁의 제1회전’이라 선언하였을 만큼 이를 계기로 사기가 크게 진작되었다. 이로써 독립전쟁의 승리 가능성을 확신한 독립군은 지속적인 독립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독립군단간의 군사통일 노력을 더욱 경주하는 한편, 병력보충과 군비확충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이와 같은 사기양양과 전력증강은 장차 벌어질 일제 침략군과의 대규모 접전에서 승리를 담보하는 것이었다.

일제 군부 역시 봉오동 참패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일제는 그동안 독립군의 국내진입작전에 시달리면서도 정규군대를 투입하면 독립군을 쉽게 ‘진압’할 수 있는 ‘民兵’ 정도로 판단하고 있었다. 하지만 봉오동 참패를 계기로 일제는 정예화된 독립군의 막강한 전력을 실감하고, 장차 독립군이 국내진입작전을 대규모로 결행하게 되면 식민지통치에 심각한 위협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하기에 이르렀다.¹⁹⁾ 결국 막강한 화력을 보유한 정규 군대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봉오동에서 당한 충격적 참패는 독립군의 전력을 재평가하고, 나아가 독립군 탄압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케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뒤이어 벌어지는 청산리대첩은 봉오동승첩을 계기로 독립군과 일제 양측이 받은 이상과 같은 영향과 충격의 소산이기도 하다.

(2) 靑山里大捷

3·1운동 이후 두만강과 압록강 접경지대에서 독립군의 활동이 활발해지자, 일제는 대책 마련에 혈안이 되었다. 1920년 5월부터 조선총독부 赤 경무국장이 수차 봉천(현 심양)을 왕래하며 만주 실력자인 巡閱使 長作霖을 만나 ‘중일합동수색’이란 명목하에 일제 군경에 의한 독립군 탄압을 시도한 것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²⁰⁾ 이에 따라 서간도를 중심으로 하는 봉천성내에서 奉天督軍의 上田과 坂本の 두 경찰교문을 隊長으로 하는 上田隊와 坂本隊로 불린 ‘중일합동수색대’가 편성되어 전후 4개월에 걸쳐 독립군 및 항일단체에 대한 대탄압을 가하였다.²¹⁾

그러나 중국 관리 가운데는 한국의 독립운동을 동정 내지 지지하는 인물도 상당수 있었다. 특히 북간도의 경우가 그러하였다. 길림성장 徐鼎霖을 비롯해 연길도윤 張世銓, 보병 제1단장 孟富德 등은 중일합동수색을 반대하고 일제측의 동정을 사전에 독립군측에 통지해 주었다. 그러므로 북간도에

17) 위와 같음.

18) 『獨立新聞』 1920년 6월 22일자, 「獨立軍勝捷」; 趙中孚 외 2인 編, 『近代中韓關係史資料彙編』 5, 國史館, 1967, pp.433~434.

19) 신용하, 「봉오동전투와 청산리독립전쟁」, 『한민족독립운동사』 4, 국사편찬위원회, 1988, p.101.

20) 姜德相 編, 『現代史資料』 28, pp.67~68.

21) 國史編纂委員會 編, 『韓國獨立運動史』 3, pp.663~666.

서는 중일합동수색이 실효를 거둘 수 없었다.

한중간의 우호관계 속에서 중일합동수색에 의한 독립군 탄압작전이 실패로 귀착되자, 일제는 직접 일본군을 간도로 침공시켜 독립군과 독립운동단체를 근원적으로 제거하려는 대규모의 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1920년 8월까지 완료한 '間島地方不逞鮮人剿討計劃'이 그것이다.²²⁾

침공 계획과 준비를 완료해 놓은 뒤 일제는 간도 침략에 따른 국제적 비난과 불법성을 은폐할 적당한 구실을 마련하게 되었다. 일본군은 중국의 長江好 마적을 금전으로 매수하고 그들에게 무기를 제공한 뒤, 이들로 하여금 일제의 영사분관이 있던 琿春을 습격케 하였다.²³⁾ 1920년 10월의 琿春事件은 이와 같은 배경과 목적하에서 일제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구실로 일제는 출동 대기상태에 있던 대규모의 병력을 즉시 간도에 투입하였다. 중국 당국과의 사전교섭이나 통보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만주를 침공한 것이다. 10월 2일부터 수일간 북간도 일대에 집중적으로 투입된 일본군의 주력은 한국 침략군인 소위 조선군 소속의 일본군 제19사단이었다. 주력부대 외에도 연해주 주둔 浦潮軍과 요동지역에 배치되었던 관동군의 일부도 투입되었다. 구체적으로 만주 침공에 동원된 일본군의 부대별 병력 규모를 보면 주력인 조선군 제19사단 9천 명을 비롯해 20사단 700명, 포조군 제14사단 4천 명, 제11·13사단 각각 1천 명, 북만주파견대 1천 명, 관동군 1천 2백 명 등으로, 총병력 2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였다.²⁴⁾ 이와 같은 대규모 병력이 기관총과 대포 등 중화기와 신형장비를 갖추고 서북간도를 동서남북 사방에서 포위하는 형세로 대대적인 압박을 가해 온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독립군의 주요 근거지였던 북간도 일대는 19사단 주력부대를 비롯한 일본군의 집중적인 탄압을 받게 되었다.

한편, 일본군의 간도 침공에 앞서 일제측의 강요로 독립군에 대한 탄압을 외형적으로나마 행동에 옮길 수밖에 없던 처지에 있던 중국측 관현들은 대한국민회를 비롯한 여러 독립군단에 대해 근거지 이동을 요구하게 되었다.²⁵⁾ 연길·왕청·화룡·혼춘 등 북간도의 4개 현에서 활동 중이던 여러 독립군단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근거지를 구축하기 위해 1920년 8월 하순부터 장정길에 올랐다. 김좌진 사령관이 인솔한 대한군정서와, 홍범도 장군이 인솔한 대한독립군·국민회군 등의 연합부대는 1920년 9월 하순부터 10월 상순까지 일제의 탄압을 피하고 새로운 항일근거지를 건설하고자 각기 본영을 떠나 4~5백 리를 장정한 후 청산리대첩의 격전장이 된 和龍縣 二道溝와 三道溝 밀림지대로 진군하였던 것이다.

대한군정서 독립군이 첫회전에서 대승을 거두었던 삼도구의 靑山里는 함북 무산 북쪽에 자리잡은 忠信場에서 시작되는 60리 長谷이다. 그 골짜기 안에는 여러 한민촌락이 점점이 흩어져 있었다. 또한 청산리 북쪽에 위치한 이도구도 어랑촌을 비롯해 갑산촌·천수평·봉밀구 등 여러 촌락이 산재한

22) 朴敏泳, 「庚申慘變의 분석 연구」, 『제노사이드와 한국근대』, 충남대 충청문화연구소 편, 경인문화사, 2009, p.201.

23) 姜德相 編, 앞의 책, pp.141~142.

24) 『間島出兵史 上』, 『朝鮮統治史料』 2, 韓國史料研究所, 1970, pp.17~20.

25) 慎鍾廈, 『韓民族獨立運動史研究』, 乙酉文化社, 1985, pp.401~405.

深山長谷이다.²⁶⁾

청산리대첩은 1920년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전후 일주일 동안 화룡현 이도구·삼도구 일대에서 東正彦 소장이 지휘하던 일본군 '東支隊'의 주력부대를 맞아 백운평전투를 시작으로 완루구·어랑촌·천수평·봉밀구·고동하 등지에서 벌인 대소 10여 회의 전투에서 독립군이 거둔 승첩을 통칭한다. 그 최초의 전투인 백운평전투 교전지가 삼도구의 청산리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곧이어 벌어진 여러 전투들까지도 '청산리'라는 지명으로 묶어 대첩의 이름으로 따오게 된 것이다.

간도를 침략한 일본군 가운데 청산리 일대로 들어온 19사단의 東支隊는 용정과 무산 방면에 진출하여 安圖 남쪽, 和龍 북방에 위치한 天寶山에 주력을 두고 있었다. 독립군이 백두산록에 자리잡은 안도현이나 그 북쪽의 돈화현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임무를 맡은 이 부대는 10월 20일을 기하여 山田 대좌가 지휘하는 이른바 山田聯隊를 선두로 탄압작전을 개시하였다.²⁷⁾ 이에 따라 山田 연대는 두 부대로 나뉘어 한 부대는 삼도구에서부터, 다른 한 부대는 이도구 蜂蜜溝에서부터 각각 老嶺 방면으로 진출토록 하였다. 그리고 무산수비대 역시 石人溝를 거쳐 老嶺 방면으로 진출케 함으로써 대한군정서 독립군을 사방에서 포위하려 하였던 것이다.²⁸⁾

한편, 東正彦 소장이 직접 인솔하는 주력부대는 이도구 서북방에 있던 홍범도 지휘하의 독립군 연합부대를 공격하기 위한 '작전'을 개시하였다. 즉 東支隊 주력을 두 부대로 나누어 그 가운데 한 부대를 天寶山 방면으로 출동시켜 남하케 하고, 다른 한 부대를 이도구로부터 서진케 함으로써 독립군 연합부대를 앞뒤에서 포위 공격하려 한 것이다.

청산리 일대로 투입된 동지대의 병력 규모는 중화기로 무장한 정예기병과 포병을 포함해 약 5천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곧 이와 같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한 일본군은 10월 20일을 기해 대한군정서 및 독립군 연합부대를 총공격한다는 작전을 수립해 놓았다. 그 결과 독립군은 이러한 일본군을 상대로 21일 백운평전투를 시작으로 完樓溝, 泉水坪, 漁郎村, 天寶山, 古洞河谷 등 2, 3도구 일대에서 10여 회의 대소 전투를 벌여 모두 승리하였다. 그 가운데 22일 종일 벌어진 어랑촌전투는 독립군과 일본군 양쪽 모두 주력이 투입된 격전으로, 이 전투에서 독립군은 청산리대첩을 상징하는 승첩을 올렸다.

청산리대첩에서 올린 전과에 대해 임정 군무부는 김좌진이 인솔한 대한군정서의 전황보고에 근거하여 일본군의 전사자가 연대장과 대대장 한명씩을 포함해 1천 2백 57명이고, 부상자는 장교 이하 2백여 명이라고 밝혔다.²⁹⁾ 앞서 『독립신문』도 “김좌진씨 부하 6백 명과 홍범도씨 부하 3백여 명은 대소전투 10여 회에 왜병을 격살한 자 1천 2백여 명”이라 하여 군무부 보고와 비슷한 규모로 기술하였다.³⁰⁾ 한편 박은식은 일본군 전사자를 2천 명으로 기록하고, 청산리대첩에 직접 참전한 이범식은

26) 「北路我軍實戰記 二」, 『獨立新聞』 1921년 3월 12일자.

27) 姜德相 編, 앞의 책, pp.216~217.

28) 『間島出兵史 上』, pp.55~60.

29) 「大韓軍政署報告」, 『獨立新聞』 1921년 2월 25일자.

30) 「我軍隊의 活動」, 『獨立新聞』 1921년 1월 21일자.

회고록에서 일본군의 사상자를 3천 3백 명으로 파악함으로써 임정에서 발표한 전과를 약간 초과하고 있다.³¹⁾ 자료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보이지만 이상과 같은 전과기록은 대체로 독립군의 압승을 뒷받침하는 면에서는 그 윤곽을 같이 하고 있다.

한편, 독립군측에서도, 일본군의 피해상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경미하지만, 상당한 인적 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군의 정보기록에서도 독립군측의 피해에 대해 백운평전투에서 16명, 어랑촌전투에서 60명 정도가 전사하고, 이어 고동하곡전투에서는 30명 가량이 사상한 정도로 기술하였다. 이범석은 대한군정서 독립군의 경우 전사 60여 명, 부상 90여 명, 실종 2백여 명으로 파악했지만, 실종자는 그후 대부분 부대로 복귀한 것으로 회고하고 있다.³²⁾

독립군의 피해상황에 대해 비교적 객관적으로 파악한 자료는 임시정부 파견원 安定根이 상해 임시정부에 제출한 비밀 보고서이다. 여기서 안정근은 10월 22일부터 3일간 여러 전투에서 3백여 명에 달하는 독립군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결국 독립군의 전체 피해 규모는 여기에도 21일의 백운평전투와 25~26일의 고동하곡전투 등에서 발생한 사상자를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청산리대첩에서 독립군이 입은 인적 손실의 규모는 3백 50여 명 안팎으로 추산되는 것이다.³³⁾

(3) 參議府의 항일전

1924년에 성립된 참의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직할부대로 편성되었던 까닭에 공식명칭을 대한민국임시정부 陸軍駐滿參議府라 하였다. 후술할 古馬嶺慘變 이후 조직을 재정비하던 시기인 1927년에 임시정부에서 金承學을 신임 참의장으로 임명하여 남만주 현지로 보낸 사실로도 참의부와 임정 양자의 관계를 알 수 있다.³⁴⁾

서간도를 중심으로 한 남만주 일대에서 항일전을 수행하던 참의부 독립군은 압록강 변경지대에 집중 배치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압록강 대안의 輯安縣은 참의부의 주요한 군사 근거지이자 활동무대였다. 참의부 5개 중대 가운데 3개 중대가 집안현에 배치되었고, 나머지 2개 중대는 桓仁縣과 通化縣에 분산 배치되었다. 그리고 이들 각 중대의 독립군 병력은 소대별로 여러 지역에 분산 배치되어 있었다.³⁵⁾

참의부 대원들이 수행한 국내진공작전은 주로 압록강변의 평북 위원·자성·후창·구성·강계 등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심지어는 서울·이천·안성 등 중부지방까지 그 활동이 미치는 경우도 있었다.³⁶⁾

참의부 대원들이 수행한 대일전 가운데 중요한 사례로는 1924년 5월 19일 압록강변에서 총독 齋

31) 朴殷植, 『韓國獨立運動之血史』, 上海 維新社, 1920, p.185.

32) 李範奭, 『우등불』, 삼육출판사, 1986, p.58.

33) 慎鍾廈, 앞의 책, pp.500~501.

34) 김병기, 「참의부 연구」,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2005, pp.52~53.

35) 한국독립유공자협회 편, 『중국동북지역 한국독립운동사』, 집문당, 1997, pp.317~319.

36) 위의 책, pp.319~320.

藤實이 승선한 선박을 공격한 것을 들 수 있다.³⁷⁾ 齋藤實이 압록강 변경의 일본군 수비상황을 점검한다는 정보를 탐지한 참의장 蔡燦은 제2중대 제1소대 대원들로 특공대를 조직하여 평북 위원군 馬嘶灘에 매복시켰다. 아침 9시경 재등실이 탄 경비선이 압록강변을 따라 참의부 특공대원들이 매복해 있는 지점에 나타났다. 총지휘관 張昌憲의 사격명령에 따라 독립군들은 경비선을 향해 일제히 사격을 가하였다. 참의부 대원들의 기습공격을 받게 되자, 齋藤實을 태운 일제의 국경 순시선은 전속력으로 도주하고 말았다. 비록 齋藤實을 처단하지는 못했지만, 이 전투는 독립군의 활동을 내외에 널리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한편, 참의부 독립군이 수행한 전투 가운데 가장 처참했던 것은 1925년 3월 16일의 古馬嶺慘變이다. 이 전투는 압록강변에서 60리 떨어진 집안현의 심산유곡인 古馬嶺에서 참의부 간부를 비롯한 대원들이 5개 중대 군사회의를 개최하고 있을 때 밀정 李竹坡가 안내한 일제의 초산경찰대가 급습하여 벌어졌다. 회의 도중 급습을 받은 참의부 간부들은 결사항전의 결의를 다지면서 용감하게 분전하였으며 결국 중과부적으로 패전하여 큰 참화를 입고 말았다. 이때 참의장 崔碩淳을 비롯해 田昌禧·崔恒信·全德明 등 29명의 독립군이 장렬하게 전사 순국하였고, 제1중대 소대장인 田世用 등 몇명의 대원들만이 중상을 입고 겨우 살아났다.³⁸⁾ 이것이 1921년 6월의 자유시참변과 더불어 독립군사상 최대 참극으로 병칭되는 고마령참변이다.

(4) 한국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의 항일전

1) 한국독립군의 항일전

한국독립군은 1930년 7월 길림성 葦河에서 총사령에 李青天, 부사령에 黃學秀, 참모장에 申肅을 선임하고 中東線을 중심으로 중국 護路聯合軍 등 반만항일군과 한중연합군을 편성하여 9·18사건 후 日滿軍을 상대로 1933년까지 葦河·一面坡·依蘭 등지에서의 전투를 시작으로 도처에서 대소 회전을 벌여 다대한 전과를 올렸다. 특히 1932년 9월에 시작된 하얼빈 남방의 요충지인 雙城堡 공략전과 그 해 12월에 2천 명의 일만 유격기병대를 소탕한 경박호전투, 1933년 4월 일만연합군 1개 師 병력을 요격한 四道河子勝捷, 같은해 6월의 寧安縣 東京城戰鬪 및 大甸子嶺戰鬪 등의 전첩을 올려 북만주 한국독립군사에 큰 전공을 기록하였다.³⁹⁾

그 가운데서도 汪靑縣 羅子溝의 大甸子嶺(일명 太平嶺)에서 거둔 승첩은 한국독립군이 수행한 수많은 항일전 가운데 최대의 전과를 올린 전투로 기록되어 있다. 東京城戰鬪 이후 한국독립군은 왕청현 동북의 산악지대를 거쳐 1933년 6월 하순경 老松嶺을 넘어 東西臉子에 이르렀다.

이 무렵 한국독립군은 羅子溝에 주둔하고 있던 일제 조선군 제19사단의 '간도파견군'이 국내로 철

37) 위의 책, pp.320~321.

38) 金承學, 『韓國獨立史』, 獨立文化社, 1965, pp.400~401.

39) 장세운, 「한국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pp. 18~44.

수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한중연합군인 한국독립군과 柴世榮이 이끄는 길림구국군은 일본군의 철수 정보를 접하고 3일간 1백km를 행군하여 6월 28일경 나자구 북방 외곽의 老母猪河에 도착하였다.

한중연합군은 일본군의 퇴각로를 예단하여 유리한 곳에서 매복·공격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하여 부대를 배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독립군은 6월 말 일본군의 통과 예상지점인 대전자령의 양편 산허리에 매복하였다.

이 전투에 한국독립군은 주력부대 약 5백여 명, 중국의 길림구국군은 2천 명이 참가하였다. 한국독립군은 주력 3백 명이 고개의 가운데 부분, 정상에 배치되고 고개의 입구와 출구에는 각 1백 명이 길림구국군과 혼합 배치되었다. 한중연합군은 계곡 양편 산기슭에 구축되어 있는 참호 속에 매복·대기하여 습격 준비를 완료하였다. 한국독립군은 쌍성보전투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의 대소 전투를 치르면서 다대한 전과를 올렸지만, 그 대부분은 일만 연합군을 상대로 한 것이었다. 거기에 비하여 대전자령전투는 전적으로 일본군과의 전투였다. 그런 만큼 독립군의 결사항전을 다지는 각오도 남달랐다.

한중연합군이 대전자령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전투를 벌인 것은 1933년 6월 30일이었다. 이날 아침 일본군은 자동차와 우마차에 화물을 적재하고 대전자령을 향해 나자구를 출발하였다. 일본군의 병력은 보병·포병·기병·공병의 혼성 2개 대대 규모를 합친 약 1천 3백 명 가량이었으나, 이들 부대 외에 화령으로부터 간 화물호송대 병력과 화물자동차 1백 대, 우마차 5백 대 등이 합류, 일본군의 병력은 1천 6백 명에 달하였다.⁴⁰⁾

이날 한낮에 시작된 전투는 4~5시간 계속되었다. 이 전투에서 한중연합군은 약 2개 대대의 일본군을 완전히 격파하는 빛나는 승전을 거두었다. 일본군은 이 전투에서 많은 병력이 살상되거나 패주하여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고, 일부 부대가 겨우 탈출했을 뿐이었다. 대전자령 계곡에서 가까스로 빠져나간 후에도 일본군은 한중연합군의 추가 공세로 인해 더 큰 손실을 입고 7월 4~5일경에야 가까스로 일제의 침략거점인 百草溝에 도착할 수 있었다.

대전자령전투에서 거둔 전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 확단하기 어렵다. 여러 가지 정황과 관련자료에 의거하여 합리적으로 추론할 때, 철수하던 일본군 1천 6백 명이 괴멸적 타격을 받고 그 가운데 최소한 1백 30명 이상이 사상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소총 1천 5백 정, 군복 3천 착 등 일본군이 보유한 다량의 무기와 다대한 보급물자를 노획함으로써 독립군의 전력을 더욱 보강할 수 있었다.⁴¹⁾

2) 조선혁명군의 항일전

북만주에서 이청천이 이끄는 한국독립군이 활약하던 무렵, 남만주에서는 梁世鳳·金學奎 등이 지휘하던 조선혁명군이 중국의 의용대와 한중연합전선을 형성하여 도처에서 대소 항일전을 전개하였

40) 위의 논문, pp.36~39.

41) 위의 논문, p.43.

다. 조선혁명군 총사령 양세봉은 1932년 3월 11일 참모장 김학규와 중대장 趙化善·崔允龜·鄭鳳吉이 지휘하는 3개 중대 병력을 중국측의 王彤軒·梁錫福 부대와의 연합을 성사시켜 한중연합군을 결성하였다. 이 한중연합군이 이튿날 新賓縣의 旺清門에서 撫順縣의 千金寨로 향하여 진군하면서 유명한 英陵街戰鬪를 벌였던 것이다.⁴²⁾ 이때 일본군을 격파하고 영릉가를 점령한 한중연합군은 적군을 추격하여 上夾河까지 점령하였다. 전후 5일간에 걸친 이 전투에서 한중연합군은 대승을 거두었고, 일본군은 무수한 사상자와 군장비 및 무기 등을 버려둔 채 패퇴하고 말았다.⁴³⁾

이 무렵인 1932년 4월 唐聚五·王育文 등 중국의용군측의 중요 부대는 桓仁에 모여 본격적인 항일전을 전개할 것을 맹세하였다. 이어 효과적인 항전을 위해 遼寧救國會를 조직하였다. 이와 같이 조직된 중국측의 구국회는 총사령부 아래 52개의 사령부를 두어 남만 전역에 20만 대군을 배치한 제1의 항일군단이 되었다. 조선혁명군은 지체없이 요녕구국회와도 공동으로 항일전을 전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하여 조선혁명군의 총사령 양세봉은 한중연합군인 요녕구국회의 특무부대사령관에 임명되었고, 그 사령부를 通化에 설치하였다.

이듬해인 1933년 5월에 일만연합군은 영릉가를 되찾기 위해 1만 5천 명의 대병력으로 한중연합군을 공격해 왔다. 한중연합군은 이들을 맞아 용감히 항전하였지만, 전력의 열세로 인해 끝내 영릉가를 포기하고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뒤 일본군은 7월 7일 영릉가 石人溝 골짜기 깊숙이 진영을 구축하고 있던 조선혁명군의 사령부를 또다시 공격해 왔다. 이 전투에서 조선혁명군은 양세봉 총사령의 탁월한 전술에 힘입어 일본군 40여 명을 사살하고 다량의 무기를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그리고 석인구전투 직후인 7월 중순경 한중연합군은 撫順縣 老溝臺를 점령하고 있던 일본군 1개 연대를 공격하여 2일간에 걸친 격전 끝에 물리쳤다.⁴⁴⁾

그러나, 이처럼 분전하던 조선혁명군은 1934년 9월 양세봉이 순국하고 또 일제의 파상적 공세에 직면하게 되자 그 세력이 급격하게 쇠퇴하였다. 이에 金學奎와 玄益哲 등 지휘관들과 그들을 따르던 독립군들은 山海關을 넘어 중국 관내로 이동하여 임시정부에 합류하고 또 광복군에 참가하였다. 이와는 달리 중국 관내로 이동하지 않고 남만주에 잔류한 조선혁명군 대원들은 1938년까지 여러 난관 속에서 끝까지 항일전을 전개하였으며, 이 무렵 공산주의 계열의 항일단체인 동북항일연군에 합류하기도 하였다.⁴⁵⁾

42) 蔡根植, 『武裝獨立運動秘史』, 대한민국 공보처, 1949, p.165.

43) 愛國同志援護會 編, 『韓國獨立運動史』, 1956, p.283.

44) 위의 책, pp.282~284; 蔡根植, 앞의 책, pp.168~170.

45) 장세운, 「조선혁명군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0, pp.22~23.

Ⅲ. 광복군의 항일무장투쟁

1. 광복군의 편성과정

북만주에서 항일전을 수행하던 한국독립군은 1933년 9월 東寧縣城戰鬪를 고비로 전력이 급격히 쇠퇴하였다. 그동안 연합전선을 구축해왔던 중국군과 갈등이 파생되고 또 일본군의 공세가 크게 강화되에 감에 따라 전황이 매우 불리해졌던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임시정부에서는 중앙육군군관학교 洛陽分校 한인특설반 운영 등 무장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주 독립군세력에 대해 관내 이동을 요청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33년 말 한국독립당 당수 洪震 및 한국독립군 총사령 李青天, 부사령 黃學秀를 비롯하여 趙擎韓·吳光鮮·公震遠·金昌煥 등 한국독립군 주요 간부들과 한국독립군 가운데 선발된 군관학교 입학 지원자 40여 명이 중국관내로 이동하게 되었다.⁴⁶⁾

상해 임시정부의 방침에 따라 한국독립군 지도부가 관내로 이동한 후 만주 독립군의 활동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남만주에서 활동하던 조선혁명당의 지도자와 조선혁명군의 장령들인 玄益哲과 金學奎 등도 휘하 독립군과 함께 1935년을 전후하여 남만주를 떠나 산해관을 넘어 중국 관내지방으로 이동하였다.⁴⁷⁾ 중국 관내로 이동한 한국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의 주요 성원들은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 및 그와 관련된 각 정당에서 크게 활약하였고, 아울러 중앙육군군관학교 낙양분교의 특별훈련반 등을 통해 배출된 인재들은 대부분 광복군의 기간요원으로 성장하였다.

한편, 임시정부는 1932년 4월 윤봉길의 홍구공원의거를 계기로 중국 국민당 정부의 각별한 주목과 지원을 받게 되었다. 이에 김구는 1933년 봄 蔣介石과 면담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중국중앙군관학교 낙양분교에 한인특설반이 설치될 수 있었다.⁴⁸⁾ 1934년 2월 92명의 간부 훈련생이 입교함으로써 개교하였다. 그러나 이 무렵 일제의 압력을 받은 중국정부에 의해 설립 1년만에 1기생 62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채 폐교되고 말았다. 그 뒤에도 군사간부를 양성하려던 임시정부의 노력은 계속되어 일부 한인 청년들은 南京의 중앙육군군관학교에 들어가 무관교육을 받았다. 그리하여 1934~1937년간 2백 명 정도가 낙양, 남경의 중국 군관학교를 졸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군관학교 출신 한인 청년들은 광복군이 편성되기 전까지는 독립운동 단체에서 활동하게 된다. 그 중 김구 계열은 한국국민당청년단으로 흡수되었다가 중일전쟁 이후 이청천 계열과 연합하여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를 조직하였고, 이후 군사특파단 또는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서 활동하면서, 광복군 창설에 기초적 역할을 하였다.

1937년 중일간에 전면전이 발발하자, 임시정부에서도 전시체제에 대비하여 군사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군무부 산하에 軍事委員會를 설치하고, 柳東說·이청천·李復源·玄益哲·金學奎·安恭根 등 6

46) 一靑, 앞의 글, p.56.

47) 韓詩俊, 『韓國光復軍研究』, 일조각, 1993, pp.47~48.

48) 윤병석 직해, 『백범일지』, 집문당, pp.320~321.

명을 군사위원으로 선임하였다. 안공군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모두 만주 독립군을 이끌고 실전경험을 쌓은 탁월한 지휘관들이었다. 곧 군사위원회는 1943년 4월 공식적으로 해체될 때까지 전시체제하에서 임시정부의 군사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 가는 군무의 핵심기구였고, 특히 광복군을 창설하는데 기초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군사위원회에 이어 임시정부에서 항일전에 대비하여 설치했던 또 하나의 기구가 軍事特派團이었다. 1939년 綦江에 도착한 임시정부에서는 화북지방으로 이주해온 20만 명의 한인들을 대상으로 선전 초모활동을 벌이기 위해 군사특파단을 조직하여 그해 11년 西安으로 파견했던 것이다. 군사특파단은 曹成煥을 단장으로 하고 黃學秀·李俊植·羅泰燮을 비롯하여 청년공작원 盧福善·徐波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군사특파단의 활동은 1940년 11월 西安에 광복군 총사령부가 설치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광복군을 창설한 직후 임시정부에서는 총사령부를 서안으로 이전시켰고, 이와 동시에 군사특파단은 발전적으로 해체되었다. 단장인 조성환은 광복군 총사령이 된 이청천의 뒤를 이어 군무부장으로 선임되어 1941년 1월 重慶으로 복귀하였고, 나머지 단원들은 西安 총사령부의 간부로서 활동을 계속하였다.⁴⁹⁾

한국광복군은 1940년 9월 17일 重慶에서 창설되었다. 광복군 창설의 마지막 실무는 金九 주석을 비롯하여 중국측 인사들과 교분이 두터웠던 朴贊翊을 비롯하여 만주 독립군의 지휘관 출신인 李青天·柳東說·金學奎·趙擎韓·李範奭 등이 맡아 성사시켰다.

광복군 편성 작업은 먼저 이청천을 총사령, 이범석을 참모장으로 하는 총사령부를 구성하는 일부부터 시작하였다. 이것은 당시 하위 편제를 구성할 만한 인적 자원이 아직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광복군총사령부 편성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보면, 우선 임시정부의 군사정책을 그동안 직접 담당하던 인물들이 중심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청천·이복원·김학규·이준식·황학수 등은 군사위원회 위원들이고, 조성환·이준식·유해준·고일명·나태섭 등은 군사특파단 인물들이었다. 다음으로, 대부분의 간부들이 이청천·이범석·김학규·이준식·황학수 등과 같이 군대의 운용과 실전경험을 가진 만주 독립군 출신이거나 정식 군사교육을 받은 무관학교 출신이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위의 내용과 연계되어 있기도 하지만, 총사령부 편성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광복군을 만주 독립군의 맥락을 계승하여 편성하려 했다는 점이다. 총사령 이청천과 참모장 이범석은 대표적인 독립군단인 서로군정서와 북로군정서 독립군을 이끌었던 인물이고, 중요 간부들도 한국독립군과 조선혁명군 출신들이 주축이 되었던 사실이 이러한 경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다.⁵⁰⁾

이것은 광복군이 민족의 군대로서 역사적 정통성을 계승했다는 점을 표방한 결과이다. 즉 광복군은 대한제국 군대에서 의병, 독립군으로 이어지는 민족군대의 嫡傳임을 자부하고 있었던 것이다. 「광복군총사령부성립보고서」에서

49)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 6, 1975, p.206.

50) 韓詩俊, 앞의 책, pp.93~94.

박장군(서울 시위대 제2연대 제1대대장 朴昇煥 - 필자주)의 자결 충성이 일어나자 한국군은 용기를 떨쳐서 싸워 한국에 주둔한 적군을 크게 사살하였으니 市街가 온통 붉게 물들었다. 수일이 되지 않아 전국의 의병이 이 소문을 듣고 다시 일어나 국군과 민병이 서로 섞여 몰아붙였으니 聲勢가 널리 크게 퍼지게 되었다. 전쟁 10여년에 한국 전토는 포연탄우중에 있어 비무장 한인 남여노소로 처참히 적에게 피살된 자가 15만명을 내려가지 않으며, 한국 주둔의 적군으로서 한국군에 사살당한 자도 역시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 요컨대, 한국광복군은 일찍이 1907년 8월 1일 國防軍이 해산되던 때에 곧 성립된 것이다. 환언한다면, 敵이 우리 국군을 해산하던 날이 곧 우리 광복군 창설의 때이니, 금년(1940년 - 필자주) 8월은 마땅히 33주년에 해당하는 것이다.⁵¹⁾

라고 하여 대한제국 군대의 강제해산과 박승환의 순국으로 촉발된 시위대의 항일전으로 인해 격화된 전국 의병전쟁을 논급하면서, 이와 같이 국권수호를 위해 결사 항전한 國軍의 전통은 1940년 광복군으로 그대로 계승 발전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광복군총사령부의 편성에 뒤이어 휘하 단위부대로 支隊를 편성하였다. 총사령부에서는 원래 3개 지대를 편성하였던 것 같다. 총사령부의 기본목표는 3개 사단을 편성하는 것이었고, 총사령부와 군사특과단 인원들로 3개 지대를 편성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1941년 1월 1일 한국청년전지공작대가 광복군에 편입하여 제5지대가 됨으로써 모두 4개 지대가 편성되었다. 이로써 초창기 광복군은 총사령부와 그 단위부대로 4개 지대의 편제를 갖추어 활동하였다.⁵²⁾

이와 같이 4개 지대를 근간으로 한 광복군은 김원봉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합류해오자, 1942년 기존의 4개 지대를 모두 해체하고 3개 지대로 재편하였다. 제1지대는 김원봉의 조선의용대를 근간으로 하였고, 제2지대는 기존의 제1, 2, 5지대를 통합하여 편성한 것이며, 제3지대는 모병활동을 위해 敵前支隊인 안휘성 阜陽의 徵募第6分處가 발전하여 성립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3개 지대 편제는 해방 때까지 그 골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2. 광복군의 대일전

(1) 인면전공작대의 항일전

임시정부가 광복군을 편성한 궁극적 목적은 미국, 영국, 중국 등과 함께 연합국의 일원으로 대일전에 참전하여 승리함으로써 당당한 전승국의 자격으로 한국독립을 쟁취하는 것이었다. 광복군은 이

51) 「韓國光復軍總司令部成立報告書」, 『韓國獨立運動文類』 제1집, 대한민국 임시정부 선전위원회 편, 1940, pp.88~89. “朴將軍之鎗聲作 而韓軍奮勇出戰 大殺駐韓敵軍 市街盡赤 不數日 三韓義兵 聞風再起 國軍民兵 相與配合 所向披靡 聲勢浩大 轉戰十餘年 韓國全境 在鎗林彈雨中 非武裝之韓人男女老幼 慘被敵刃屠殺者 不下五十萬 敵軍之輪流駐韓 爲韓軍格殺者 亦不可稱數 總而言之 韓國光復軍 早於一九〇七年八月一日國防軍解散時 仍即成立 換言之 敵人解散我國軍之日 即我光復軍創設之時 今年八月適值三十三週年”

52) 韓詩俊, 앞의 책, p.145.

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안팎의 여러가지 제약 조건을 무릅쓰고 다양한 군사활동을 전개하였다. 인도·미얀마전선[印緬戰線]에 인면전공작대를 파견하여 영국군과 공동으로 군사작전을 전개한 것과, 미국의 전략사무국(OSS)과 공동작전을 구상한 일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인면전공작대는 1943년 중경에서 현지로 파견되었고, 1945년 해방 직후 중경으로 귀환하였다. 파견 기간은 2년이었고 대원은 모두 9명에 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활동이 갖는 역사적 의의는 결코 적지 않으며, 한국독립운동사에서 뚜렷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인면전공작대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연합국의 일원으로 2차대전에 참전하기 위해 편성한 광복군의 소임을 최일선에서 구현했던 ‘유일한’ 부대였기 때문이다. 이 부대는 영국군과 공동으로 대일전을 벌여 임팔 등지에서 특수 공작전으로 상당한 전과를 올리며 커다란 활약을 하였던 것이다.

韓志成을 대장으로 한 광복군 인면공작대는 중국군사위원회에서 3주간 교육을 받고 1943년 8월 말 인도 콜카타로 파견되었다. 콜카타에 도착한 뒤 수도 델리로 이동해 특수 공작전 수행을 위한 훈련을 받았다. 훈련내용은 영어학습과 일어방송, 전단작성, 문서번역 등이었다. 특히 인면공작대원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던 사람은 충청남도 공주에서 35년간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1906년 永明學校를 세워 경영하던 인물인 윌리엄(Frank E. C. Williams)이었다. 1940년 11월 한국에서 강제 추방되어 인도로 갔던 그는 델리 외곽의 가지아바드(Ghaziabad)에 농업 기술과 자력갱생을 가르치던 ‘인그라함학교’를 설립하였는데, 인면공작대원들이 바로 이곳에서 영어를 배웠던 것이다.⁵³⁾ 특수공작전 투입을 위해 실시된 인면공작대의 교육은 1943년 9월 15일부터 12월 10일까지 3개월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2차대전 중 동남아의 대표적인 전투 가운데 하나가 1944년 3월부터 7월까지 영국군과 일본군 사이에 벌어졌던 임팔 대회전이었다. 델리에서 훈련을 마친 인면공작대는 ‘부야크’에 집결한 뒤 인도, 미얀마 국경지대의 임팔 戰場에 투입되었다. 대원들이 임팔에 도착한 것은 문웅국, 김상준, 나동규가 2월 12일이며, 한지성, 박영진, 김성호가 3월 19일이었다. 대원 가운데 송철은 델리의 영국군사령부에 남아 군사업무에 협조하였고, 이영수와 최봉진은 콜카타에 남아 대적방송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영국군 201 전지선전대에 배속된 문웅국과 김상준, 나동규 3인은 영국군 제17사단과 함께 1944년 3월 초 미얀마 영내의 티딤까지 진격하였지만, 이곳에서 일본군 제33사단에 의해 포위되어 난관에 봉착하였다. 이때 문웅국은 일본군 노획문서를 정확히 해독하고 그 정보를 사단장 코완(D. T. Cowan) 장군에게 제공함으로써 사단병력이 전원 무사히 철수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⁵⁴⁾

임팔대회전 시기에 인면공작대가 활동했던 지역으로는 현재 자료상 임팔을 비롯하여 디마푸르(Dimapur), 캅글라통비(Kanglatongbi), 우크룰(Ukhrul), 비센푸르(Bishenpur), 티딤(Tiddim) 등지가 확인된다. 임팔 정북방으로 210km 상거한 디마푸르는 콜카타에서 연결된 철도의 종착지이고, 캅글라통비

53) 영명100년사편찬위원회, 『永明100年史』, 2006, pp.321~324.

54) 韓國精神文化研究院 編, 『韓國獨立運動證言資料集』, 박영사, 1986, pp.114~115.

는 임팔 북방 외곽지대에 위치해 있다. 우크롤은 임팔 북동쪽 미얀마와의 국경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비센푸르는 임팔 정남방에 근접해 있다. 그리고 티딤은 다시 비센푸르 정남쪽 180km 떨어진 미얀마 영내에 있다. 인면공작대는 이들 지역에서 대적선무방송을 비롯하여 문서해독, 포로 심문과 교육, 대적선전지 발행 등의 특수공작전을 영웅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상당한 전과를 올릴 수 있었고, 나아가 영국군의 깊은 신뢰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대원들은 3월부터 5월까지 임팔지역에서만 대적선무방송 30여 회, 10여 건의 포로심문, 문서번역 등의 공작전을 전개하였다.⁵⁵⁾

임팔 대회전 참전 후 인면공작대는 1945년에 다시 영국군과 함께 미얀마 탈환전에 투입되었다. 미얀마의 최대 격전지였던 만달레이 공방전에 합류한 것을 비롯해 미얀마의 수도 양곤 상륙작전에 참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1944년 7월 중경으로 복귀한 나동규를 대신해 1945년 3월 인도에 파견되었던 안원생 대원이 동남아전구사령부에 배속된 외에 한지성, 박영진, 김성호 대원은 미얀마 중북부에서 만달레이로 향해 남진하는 부대에, 최봉진, 김상준, 이영수는 미얀마 중부지역을 우회하여 만달레이를 향해 북상하는 부대에, 그리고 문응국, 송철은 미얀마의 수도 양곤 상륙작전에 참전한 것이다.

광복군 인면공작대 9명 전원은 미얀마 탈환작전이 종료된 후 인도 콜카타로 철수하였다. 대원들은 이곳에서 8·15광복을 맞이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1945년 9월 10일 콜카타에서 중경으로 무사히 귀환함으로써 2년간에 걸친 인면전구 공작전을 종료하였다.

요컨대, 광복군 인면전구공작대는 연합군인 영국군과 연합하여 적군인 일본군을 상대로 특수공작전을 수행하였다. 인면공작대원들이 비록 영국군에 배속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신분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광복군이었다. 그러므로 인면공작대가 자신들의 소임으로 자각하고 있던, 연합군의 일원으로 편제되어 일제 구축을 통한 조국광복의 신념을 철저하게 구현하였던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⁵⁶⁾

(2) 한미공동작전의 추진

1940년 9월에 창설된 광복군은 처음부터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대일전 참여에 전력을 기울였다. 임시정부 및 광복군 수뇌부는 연합국, 특히 태평양전선에서 일본군을 격파하면서 북상하고 있는 미국을 향하여 적극적인 전시 참전외교를 전개하였다. 또한 한반도문제에 부정적이던 미국 정부도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대일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외의 한인독립운동세력을 활용코자 하였다. 이와 같은 양측의 전략적 이해가 맞아 떨어져 1945년 초부터 광복군과 미국 전략첩보국(OSS, Office of Strategic Services)의 합작훈련에 대한 교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⁵⁷⁾ 이와 같은 교섭은 주로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과 중국 OSS 비밀첩보과의 사전트(Clyde B. Sargent) 대위 사이에서 이루어

55) 한지성, 「인도에서 활약하는 조선용사들」, 『독립』 제3권 제75호, 1945년 6월 13일자.

56) 박민영, 「한국광복군 印緬戰區工作隊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p.179.

57) 김광제, 『한국광복군』(한국독립운동의역사 5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p.239.

졌다.

즉 미군과의 공동작전을 통해 연합군의 일원으로 국내로 진공하려던 광복군의 의도와, 미군의 한반도 상륙에 필요한 정보수집과 첩보활동에 광복군이 매우 유용할 것으로 인식한 OSS의 판단이 합치된 결과 한미연합작전이 추진되었던 것이다. OSS에서 광복군을 동원하여 첩보원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입안한 '독수리작전'(Eagle Project)이 그것이다. 독수리작전 안은 1945년 2월 중국 OSS 비밀첩보과에서 처음 작성된 뒤 OSS 총수 도노반(W. J. Donovan) 장군과 중국 주둔 미군총사령관 웨드마이어의 최종 승인을 얻고, 다시 임시정부 및 광복군과 협의를 거쳐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독수리작전 계획서에 의하면 선발된 대원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첩보, 통신 훈련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들 요원들을 훈련시킨 후 한반도의 5개 전략지점인 서울·부산·평양·신의주·청진 등지에 침투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들의 주요 임무는 각 지역의 해군기지·병참선·비행장을 비롯한 군사·산업시설·교통망 등에 대한 정보수집이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지역별로 서로 다른 임무가 부여되었다. 아울러 이들이 구축한 정보망이 뿌리를 내리고, 연합군의 북상이 한반도나 일본에 육박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정보수집 외에도 지하운동의 규모와 활동 및 한국인의 의식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한국인의 대중봉기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훈련기간 3개월 가운데 처음 2개월은 서안 杜曲에서 첩보훈련을 하고, 나머지 1개월은 昆明으로 장소를 옮겨 통신훈련을 실시하기로 되어 있었다. 한반도의 침투방법으로는 山東半島를 출발하는 해로, 혹은 만주를 거치는 육로 등의 경로를 설정하였다.⁵⁸⁾

이러한 계획에 따라 광복군 제2지대원 가운데 50명이 선발되어 제1기로 훈련을 받았다. 독수리작전의 훈련은 첩보공작을 위한 훈련으로 시작되었다. 하루 8시간의 교육이 실시되었고, 1주일간 교육이 끝나면 시험이 치러졌고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퇴출되기도 하였다. 훈련과목은 첩보 및 통신교육, 일본군 전투서열, 심리전술, 독도법 등 매우 다양하였고, 특히 무전기술 습득을 위한 통신교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5월 11일 시작된 제1기 훈련은 3개월 뒤인 9월 4일 종료되어 50명의 훈련생 가운데 38명이 과정을 수료하였다. 그리고 제1기에 이어 제2기 훈련이 8월 13일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일제 패망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말았다.⁵⁹⁾

한편, 제2지대 외에도 安徽省 阜陽에 있던 광복군 제3지대도 같은 시기에 OSS 합작 훈련을 실시하였다. 제3지대는 1945년 6월 30일 정모제6분처에서 지대로 승격되면서 한미합작훈련에 돌입하게 되었다. 22명의 선발대원들은 안휘성 남쪽의 立煌으로 가 7월 7일부터 미군복과 미군용 보급품을 지급받고 3개월 과정의 훈련을 시작하였다. 여기에는 한국어와 독립운동진영의 내부상황에 밝았던 웨임스(C. N. Weems)도 제3지대의 고문 자격으로 훈련에 관여했다고 한다.⁶⁰⁾

58) 위의 책, pp.241~242.

59) 韓詩俊, 앞의 책, p.287.

60) 김광재, 앞의 책, pp.262~264.

하지만, 이와 같이 한미공동으로 대일전을 전개하려 했던 광복군의 작전계획은 곧이어 닥친 일제 패망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말았다. OSS와 공동으로 국내침투를 위한 훈련까지 마치고 실전 투입을 목전에 두고 있었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했던 관계로 실제 항일전선에 투입되지 되지 못한 채 독립을 맞이하게 됨으로써 한민족과 임시정부의 장래에 커다란 암운이 드리우게 되었던 것이다. 광복을 앞두고 김구 주석을 비롯하여 이청천, 이범석 등 광복군의 수뇌부가 西安에 머물면서 광복군의 미군편입과 국내침투 문제를 미국측과 협의하기 위해 몰두한 사실도 이 문제를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좌우하는 중대 사안으로 깊이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좌이다.

IV. 맺음말

이상으로 만주 독립군과 임시정부 광복군이 전개한 항일무장투쟁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한말 의병 전쟁에서 시작된 항일무장투쟁은 독립운동의 근간을 이루며 만주 독립군으로 연계되었다. 그리고 만주 독립군은 1910년대 독립운동의 주된 사조였던 獨立戰爭論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독립전쟁론은 1905년 을사조약 체결 이후부터 1910년 국치 전후에 걸쳐 형성된 독립운동의 이론체제로 한민족이 일제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는 민족의 힘을 길러 적당한 시기에 일제와 전면전을 벌여 승리해야만 한다는 논리였다.

만주의 독립군단이 편성되는 것은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해서였다. 전 민족의 합일된 힘이 분출된 3·1운동 직후에 서북간도에는 북로군정서·대한독립단·군무도독부·서로군정서 등 독립전쟁을 표방한 대소 독립군단이 동시다발적으로 편성되었다. 이 시기에 편성된 만주의 독립군단은 3·1운동에서 나타난 한민족의 독립열망을 상징하는 것으로, 전 민족의 염원을 안고 출범한 대한민국임시정부처럼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 독립전쟁을 수행하였다. 그러므로 봉오동승첩과 청산리대첩은 이 시기에 만주 독립군이 전개한 독립전쟁의 최고봉인 동시에, 3·1운동 이후 극도로 고조된 독립열망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3·1운동 직후 만주 독립군의 독립전쟁은 일제의 파상적 탄압을 받으면서 고난과 시련을 맞아 크게 위축되었다.

만주 독립군단은 1924~5년 참의부·정의부·신민부 등 3부로 통합되었고, 이를 계기로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이 새로운 활기를 띠었다. 압록강 대안의 남만주에 세력을 가진 참의부, 요녕성과 길림성에 걸치는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정의부, 동북만의 중동선 일대에서 북간도에 걸치는 신민부 등 3부는 모두 한인사회의 자치를 집행하는 민정기관과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는 군정기관의 결합체로 독립전쟁론의 구현을 최고 목표로 삼은 군정부였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참의부는 지리적 근접성과 무장투쟁의 지향성으로 인해 1920년대 중반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주도한 군단이었다. 1925년 3월 참의부 대원 29명이 전사 순국한 고마령참변은 강경한 무장항일전을 지향하던 참의부의 성향을

침작케 하는 비극적 사건이었다.

1930년대 만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은 일제가 만주를 침략한 현실적 조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전개되었다. 즉 북만주 일대에서 활약한 한국독립군과 남만주에서 활동한 조선혁명군은 만주가 일제에 의해 유린되고 괴뢰 만주국이 들어선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인 항일세력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대일전을 수행하였다. 한국독립군이 1932~33년간에 전개한 경박호전투·동경성전투·대전자령전투 등과, 조선혁명군이 같은 기간에 치렀던 英陵街戰鬪 등은 모두 중국인 반만항일군과 연합하여 공동으로 전투를 수행하여 올린 승첩이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1933년 6월 말 치른 대전자령전투는 규모와 전과 면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이때 1천 6백 명의 일본군이 괴멸적 타격을 입었고, 그 가운데 1백 30명 이상이 사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만주 독립군은 일제의 파상적 탄압으로 말미암아 1930년대 중반에 이르면 더 이상 만주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그 중심인물들이 중국 관내지방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항일무장투쟁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국독립군 계열의 李靑天和 黃學秀, 그리고 조선혁명군 계열의 玄益哲과 金學奎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군인 광복군은 이러한 인적 기반 위에서 편성될 수 있었다.

한국광복군은 1940년 9월 17일 중경에서 편성되었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한 이후 임시정부는 대일전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면서 전시체제로 돌입하였다. 군사위원회의 설치와 군사특파단 파견은 이 무렵 대일전을 염원하던 임시정부가 취할 수 있던 최대한의 군사적 조치였다. 이러한 토대위에서 광복군은 창설될 수 있었다. 임시정부가 광복군을 편성한 목적은 미국, 영국 등과 함께 연합국의 일원으로 대일전에 참전하여 승리함으로써 당당한 전승국의 자격으로 독립을 쟁취하는 것이었다. 인도·미얀마전선(印緬戰線)에 인면전구공작대를 파견하여 영국군과 공동으로 군사작전을 전개한 것과, 미국의 전략사무국(OSS)과 공동작전을 구상한 일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인면전구공작대는 1943년 중경에서 현지로 파견되었고, 1945년 해방 직후 중경으로 귀환하였다. 파견 기간은 2년이었고 대원은 모두 9명에 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활동이 갖는 역사적 의의는 결코 적지 않다. 임시정부가 연합국의 일원으로 2차대전에 참전하기 위해 편성한 광복군의 소임을 최일선에서 구현했던 ‘유일한’ 부대였기 때문이다. 이 부대는 영국군과 공동으로 대일전을 벌여 임팔 등지에서 특수 공작전으로 상당한 전과를 올리며 커다란 활약을 하였던 것이다.

광복군은 또한 국내침투를 위해 미국과도 공동으로 작전을 계획하였다. 미국 정부는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대일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외의 한인독립운동세력을 활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공동전선이 형성될 수 있었다. 그 결과 2지대의 경우, 1945년 5월부터 광복군과 미국 전략첩보국(OSS, Office of Strategic Services)의 합작훈련이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5월 11일 시작된 제1기 훈련은 9월 4일 종료되어 38명의 정예요원이 과정을 수료하였다. 그리고 제3지대에서도 22명의 선발대원

들이 立煌에서 7월 7일부터 3개월 과정의 훈련을 시작하였다. 3지대 훈련에는 한국사정에 매우 밝았던 웨임스(C. N. Weems) 대위도 고문자격으로 관여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한미공동 작전 구상은 곧이어 닥친 일제 패망으로 인해 미처 실행되지 못하고 말았던 것이다.

요컨대, 만주 독립군과 임정의 광복군은 독립운동사의 중심을 관류하는 항일무장투쟁사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대한제국 군대와 항일의병의 嫡統을 계승한 한민족의 精華라 할 수 있다. 곧 국내에서 활동하던 의병 가운데 국치 전후 北上渡江을 결행한 세력이 곧 만주 독립군의 근간이 되었고, 또 만주 독립군의 핵심세력이 중국 관내지방으로 이동하여 임정 광복군의 주류를 형성했다는 사실과 그 경향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립전쟁을 모토로 한 항일무장투쟁 노선은 지역적, 시대적 환경과 조건에 능동적으로 상응하여 형태와 방식을 달리하면서, 일제침략이 가속화되는 1894년 청일 전쟁 이후부터 1945년 해방 때까지 일관되게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 한지성, 「인도에서 활약하는 조선용사들」, 『독립』 제3권 제75호, 1945.
- 蔡根植, 『武裝獨立運動秘史』, 대한민국 공보처, 1949.
- 愛國同志援護會 編, 『韓國獨立運動史』, 1956.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 6, 1975.
- 慎鏞廈, 『韓民族獨立運動史研究』, 을유문화사, 1985.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編, 『韓國獨立運動證言資料集』, 박영사, 1986.
- 尹炳奭, 『獨立軍史』, 지식산업사, 1990.
- 尹炳奭, 『國外韓人社會와 民族運動』, 一潮閣, 1990.
- 韓詩俊, 『韓國光復軍研究』, 일조각, 1993.
- 윤병석 외 5인, 『중국동북지역 한국독립운동사』, 집문당, 1997.
- 朴敏泳, 『大韓帝國期 義兵研究』, 한울, 1998.
- 영명100년사편찬위원회, 『永明100年史』, 2006.
- 채영국, 『1920년대 후반 만주지역 항일무장투쟁』,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 김광제, 『한국광복군』,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 장세윤, 「한국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 장세윤, 「조선혁명군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 1990.
- 박민영, 「한국광복군 印緬戰區工作隊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3, 2009.

Abstract

The Independence Army And The Korean National Army's Military Fighting Against Japan

Park, Min-young*

The military resistance was the main stream of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originated from Righteous Army War. The righteous army also developed to the Manchuria Independence Army.

The formation of independence corps in Manchuria was right after the 3·1 movement. Manchuria Independence Army developed the independence war with the longing for Korean independence. The peak of the Manchuria Independence war was the great victories of Bong-O dong and Chung-San ri in 1920.

Manchuria Independence Army co-operated together with Chinese people after the Manchuguo was established. Hankook Independant Army in north Manchuria and Chosun Revolution Army in south Manchuria were formed. These two Armies allied with Chinese people and fought against Japanese Army.

However, the Manchuria Independence Armies were suppressed by Japanese Army and moved to the south-west area of China in the 1930's. These became the matrix of Korean National Army.

Korean National Army was formed in September, 1940 by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The purpose of creation of Korean National Army was to fight Japan with the USA and the United Kingdom of Britain. The representing examples of having dispatched Korean National Army Liaison Unit to India and Burma and launched a military co-operation with British army and planned a co-operation with OSS of USA shows the purpose well.

The Korean National Army Liaison Unit were dispatched in 1943 and returned in 1945, right after liberation from Japan. KNALU was the only unit of Korean National Army fought a battle with Japanese army. This unit performed remarkable activities with the British army, like in Imphal.

KNA also planned a infiltration operation into Korea with the USA. As a result, KNA had a joint training with OSS from May, 1945. However, the Korea-America joint operation plan was not realized due to the Japanese collapse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the plan.

[Key Words] Independence Army / Korean National Army /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 KNALU
(Korean National Army Liaison Unit) / Hong Beom-doh / Lee Cheong-cheon / Kim Hahk-gyu

* Research Fellow, Institute of Korea Independence Movement Studies